韓國保健教育學會誌 第7卷 1號(1990. 6)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Vol. 7, No. 1(1990)

서울시 초등양호교사의 구강보건 인식도에 관한 조사연구

A Study on the Oral Health Knowledge and Attitude of Elementary School Nursing Teachers in Seoul

최 길 라* · 곽 경 환* · 정 성 철** · 김 종 열**
(*학교건강관리소 구강보건실, **연세대학교 예방치과학교실)

目 次

Ⅰ. 서 론
Ⅱ. 연구대상 및 방법
Ⅲ. 연구결과
Ⅳ. 총괄 및 고찰
Ⅴ. 결 론

Ⅰ. 서 론

오늘날 보건의료의 개념을 해방이후 초기단계의 시혜적이고 구호적인 성격에서 전문 의료인에 의한 질병치료와 예방관리라는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다. 한편, 치료치의학 위주로 발달되어온 치의학은 민간치료의 질과 양을 증대시킬 수는 있었으나 구강병의 유병율은 감소시키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최근 구강병을 공중구강보건학적 방법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학교구강보건은 학교교육의 일부로서, 학교인구의 구강건강을 효율적으로 증진 유지시키며 학생의 구강보건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켜 일생동안 구강건강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계속적 노력과정이다. 즉, 학동기는 인간생애 중 중요한 시기이며, 특히 이에 해당되는 학동인구는 전체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업은 학교인구의 건강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보건을 학교체육과 학교보건관리 및 학교보건교육으로 나누고, 학교구강보건관리와 학교구강보건교육은 각각 학교보건관리와 학교보건교육에 나누어 속하여 있다. 한편, 우니나라 학교보건법에는 효율적인 학교보건사업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교의, 치과교의, 양호교사, 학교약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양호교사가 단독으로 학교보건업무 전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1] 따라서, 학교구강보건은 전문성에 관계없이 분리되어 소홀이 다루어져 왔으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구강보건을 포함한 학교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은 양호교사이다. 즉, 양호교사는 국민학교 아동들의 구강보건지식습득과 구강보건관리습관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급담임교사나 학부형에게도 영향을 주어 간접적인 교육을 시행할 수도 있다.

학교구강보건은 치과전문인력의 개입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학급교사나 양호교사 및 학

교책임자가 담당해야할 영역이며, 특히 이를 위해서는 양호교사를 비롯한 학교교사들이 올바른 구강보건지식과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학교인구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Falk & Kiicoyne,[2] Mckenzie[3] 등이 교육을 중심으로 사업모형을 연구개발한 바 있으며, O'Neill[4]은 공중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해서는 치의학 연구결과가 임상가에 전달되고 임상가들이 대중에게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 보다 효율적이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적 효과가 있을 때에만이 비로소 공중구강보건은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교인구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올바른 구강보건인식이 필수이며 이에 대하여 Freed & Goldstein,[5] Glasrud & Frazier[6] 등은 예비교사인 교육대학생들의 구강보건인식에 대하여 조사연구한 바 있고, Loupe & Frazier,[7] Lang 등[8]은 현직교사들의 구강보건인식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에 Lang 등은 국민학교 교사들의 구강보건인식은 학생들을 교육하기에는 부족하였고 부정확하며, 근무경력이 증가하여도 지식의 향상은 없었으며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역할인식도도 취업 전 예비교사들에 비하여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학교구강보건을 위하여 현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양호교사를 통한 구강보건교육과 학교구강보건인 점을 고려하여 서울지역 국민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양호교사들의 구강보건지식과 학교구강보건에의 역할인식도를 조사 분석하여 적절한 방법을 계획하는 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내 소재 국민학교에 근무하는 양호교사 3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공사립 및 근무경력별 분포는 표1과 같이 공립 287명(94.1%), 사립 18명(5.1%)이었으며, 1년 미만 근무 32명(10.5%), 1년에서 5년 60명(19.7%), 6년에서 10년 71(23.3%), 11년 이상 96명(31.5%), 그리고 미상이 46명(15.1%)이었다.

표 1. 연구대상의 공사립학교 및 근무경력별 분포

(단위 : 명(%))

근무경력	공립	사립	계
1년 미만	29	3	32(10.5)
1-5년	54	6	60(19.7)
6-10년	66	5	71(23.3)
11년 이상	92	4	96(31.5)
미상	46	-	46(15.1)
계	287(94.1)	18(5.9)	305(100.0)

2. 연구방법

1989년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시 학교건강관리소에서 실시된 초등 양호교사 보건교육시 참석한 양호교사 전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대상자 자신의 기록에 의하여 작성, 회수한 후 응답지를 검토하여 질문에 성실하게 답한 응답지 305매만 선택하였다.

연구도구는 문헌고찰[6][8]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근거로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작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에 수록된 설문들은 양호교사의 일반사항, 구강보건지식습득경로, 구강위생관리 목적, 치아우식증 예방법의 효과에 대한 견해, 불소에 대한 지식도, 불소의 효과에 대한 견해, 치주질환에 대한 인식도, 학교구강보건에의 역할 인식도 등 8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사항과 구강보건지식 습득경로, 불소에 대한 지식도, 치주질환에 대한 인식도, 학교구강보건에의 역할 인식도 등은 항목별로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구강위생관리 목적, 치아우식증 예방법의 효과에 대한 견해, 불소의 효과에 대한 견해 등은 평균순위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한편, 불소에 대한 지식도,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도 및 학교구강보건에의 역할인식도 등은 근무경력에 따라 Chi-square 검정을 하였으며, 불소의 효과에 대한 견해는 Friedman 검정을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총 305명의 응답지를 분석한 결과, 구강보건지식 습득경로는 표2와 같이 치과의원이 56명(18.4%), 학교수업이 162명(53.1%), 보수교육이 213명(69.8%), 학교순회구강보건교육지 75명(24.6%), 구강용품광고가 101명(33.1%), 신문, 잡지의 건강에 관한 기사 또는 홍보책자가 171명(56.1%), 텔레비젼 또는 라디오의 건강프로그램이 71(23.3%), 친구, 이웃 또는 가족이 18명(5.9%), 일반의사가 8명(2.6%)으로 보수교육을 통한 지식습득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구강위생관리 목적은 치아우식증예방이 평균순위 1.33으로 가장 우선으로 꼽혔으며, 치주질환예방 1.95, 구취제거 2.93, 심미적목적 4.09, 치과진료비절감 5.19, 아동에의 모범이 5.39의 평균순위를 보였다(표3)

표 2. 구강보건지식 습득경로

경로	사례수*	%
치과의원	56	18.4
학교수업	162	53.1
보수교육	213	69.8
학교순회구강보건교육	75	24.6
구강용품광고	101	33.1
신문, 잡지의 건강에 관한 기사 또는 홍보책자	171	56.1
텔레비젼 또는 라디오의 건강 프로그램	71	23.3
친구, 이웃 또는 가족	18	5.9
일반의사	8	2.6

*중복응답 가능

표 3. 구강위생관리 목적

(총응답자수=287명)

목적	평균순위
치아우식증 예방	1.33
치주질환 예방	1.95
구취제거	2.93
심미적 목적	4.09
치과진료비 절감	5.19
아동에의 모범	5.39

치아우식증 예방법의 효과에 대한 견해는 표4와 같으며, 각 항목은 매우 효과적(1)이라는 답으로부터 전혀 효과가 없다(4)는 답까지 4단계의 점수를 각각 평균낸 결과로 상대적인 순위를 구하였다. 기대효과는 정기적인 치과내원이 1.65, 당분섭취제한이 1.84, 치실사용이 2.49, 불소치약사용이 2.30, 불화음료섭취가 2.54, 불소용액양치가 2.31, 불소정제복용 2.74, 치면열구전색 2.15, 치약없이 규칙적인 칫솔질이 2.76으로 나타났으며 불소정제복용과 치면열구전색은 각각 38%와 39%의 응답자가 모른다고 답하였다.

불소에 대한 지식도는 표5와 같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불소는 치아의 충치 저항성을 높여주며 세균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치태가 있는 부위를

표 4. 치아우식증 예방법의 효과에 대한 견해

예방법	기대효과	사례수	상대순위
정기적인 치과내원	1.65	295	1
당분섭취제한	1.84	297	2
치실내용	2.49	243	7
불소치약사용	2.30	291	5
불소도포	2.14	284	3
불화음료섭취	2.54	233	8
불소용액양치	2.31	268	6
불소정제복용	2.74	189	9
치면열구전색	2.15	185	4
치약없이 규칙적인 칫솔질	2.76	265	10

표 5. 불소의 지식에 대한 응답현황

(단위 : %)

설문항목	(정답)	옳다	그르다	모른다
치아의 충치저항을 높여준다	(옳다)	90.9	4.7	4.3
치태가 있는 부위를 보여준다	(그르다)	8.9	65.2	24.9
치아를 깨끗이 한다	(그르다)	30.5	58.3	11.2
치아를 희게 한다	(그르다)	16.2	63.8	20.0
구강내 세균성장을 억제한다	(옳다)	75.6	16.3	8.1
뼈와 치아 형성에 기본 영양소이다	(옳다)	24.7	58.3	17.0
미세한 충치를 회복시킨다	(옳다)	21.2	63.7	15.1

보여주고 치아를 깨끗이 하고 치아를 희게 한다는 그릇된 설명에는 부족한 지식을 보였다. 특히 뼈와 치아 형성에 기본 영양소가 되고 미세한 충치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한 숫자가 그르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불소에 대한 지식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6).

불소의 효과에 대한 견해는 음료수 불소화, 불소도포, 불소치약사용 및 불소용액양치 등의 사용법에 따른 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5$), 불소복용의 효과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효과를 갖는다고 응답하였다 ($p<.0.5$) (표7).

치주질환에 대한 인식도는 표8과 같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치주질환의 특성이나 원인, 증상 및 예후에 대

표 6. 근무경력에 따른 불소의 지식에 대한 정답율

(단위 : %)

설문항목	1년미만	1-5년	6-10년	11년이상
치아의 충치저항을 높여준다	100.0	98.3	84.5	84.4
치태가 있는 부위를 보여준다	43.8	71.6	66.1	58.3
치아를 깨끗이 한다	34.4	61.7	63.4	53.1
치아를 희게 한다	46.9	70.0	66.2	52.1
구강내 세균성장을 억제한다	46.9	70.0	66.2	52.1
뼈와 치아 형성에 기본 영양소이다	34.4	25.0	28.2	10.4
미세한 충치를 회복시킨다	28.1	13.3	23.9	19.8

표 7. 불소의 효과에 대한 견해

(총응답자수 : 297)

사용법	평균순위
음료수불소화	2.59
불소도포	2.60
불소치약사용	2.60
불소치약사용	2.60
불소용액양치	2.73
불소복용	4.46

표 8. 치주질환에 대한 인식도

(단위 : %)

설문항목	(정답)	옳다	그르다	모른다
치주질환은 점차로 진행되어 치아 골조직의 손실을 초래한다	(옳다)	95.7	3.3	1.0
성인에게 치아상실의 주원인은 치아무식증이 아니라 치주질환이다	(옳다)	86.0	9.3	4.7
치주질환은 바이러스에 의하여 야기된다	(그르다)	18.2	69.4	12.4
치주질환은 구강세척제로 예방이 된다	(그르다)	33.1	58.0	8.9
올바른 구강위생관리는 치아무식증보다 치주질환예방에 효과적이다	(옳다)	53.4	35.2	11.4
치주질환의 원인은 치태이다	(옳다)	81.1	12.5	6.4
비타민과 햇볕으로 치주질환은 예방된다	(그르다)	8.8	73.9	17.3
칫솔질시 약간 피가 나는 것은 치주질환의 초기증상이다	(옳다)	86.9	10.4	2.7

표 9. 근무경력에 따른 불소의 지식에 대한 정답율

(단위 : %)

설문항목	년미만	1-5년	6-10년	11년이상
치주질환은 점차로 진행되어 치아 골조직의 손실을 초래한다	90.6	96.7	91.2	94.8
성인에게 치아상실의 주원인은 치아무식증이 아니라 치주질환이다	78.1	90.0	87.3	82.3
치주질환은 바이러스에 의하여 야기된다	62.5	78.3	59.2	68.8
치주질환은 구강세척제로 예방이 된다	59.4	56.7	43.7	59.4
올바른 구강위생관리는 치아무식증보다 치주질환예방에 효과적이다	62.5	48.3	52.1	46.9

치주질환의 원인은 치태이다	71.9	86.7	77.5	80.2
비타민과 햇볕으로 치주질환은 예방된다	59.4	81.7	73.2	65.6
칫솔질시 약간 피가 나는 것은 치주질환의 초기증상이다	78.1	91.7	88.7	65.6

표 10. 학교구강보건에의 역할 인식도

(단위 : %)

설문항목	찬성	불찬성	모른다
구강병이 생긴 아동을 발견하면 가정통신문을 보낸다	91.8	6.5	1.7
수업시간은 할애받아 구강보건교육을 한다	96.3	3.3	0.3
공중구강보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74.8	15.2	10.0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관리 감독한다	62.8	31.6	5.6
칫솔질 방법을 교육 감독한다	88.2	10.1	1.7

표 11. 근무경력에 따른 학교구강보건에의 역할 인식도 (찬성율)

(단위 : %)

설문항목	1년미만	1-5년	6-10년	11년이상
구강병이 생긴 아동을 발견하면 가정통신문을 보낸다	93.8	88.3	90.1	86.5
수업시간은 할애받아 구강보건교육을 한다	90.6	100.0	91.2	89.6
공중구강보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81.3	73.3	69.0	72.9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관리 감독한다	68.8	65.0	56.3	57.3
칫솔질 방법을 교육 감독한다	71.9	91.7	90.1	85.4

하여 맞게 답하였으나, 치주질환의 예방법에 대해서는 부족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근무경력에 따른 치주질환에 대한 인식도는 맞은 응답자율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표9).

학교구강보건에 대한 역할 인식도는 표10과 같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구강병이 생긴 아동을 발견하면 가정통신문을 보낸다는지, 수업시간을 할애받아 구강보건교육을 하고, 칫솔질 방법을 교육 감독하는 데 대해서는 높은 찬성율을 보였으나, 공중구강보건사업에의 참여와 불소용액양치사업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낮은 찬성율을 보였고, 특히 불소용액양치사업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31.6%의 높은 반대율을 나타냈다.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학교구강보건에의 역할 인식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표11).

Ⅳ. 총괄 및 고찰

구강보건교육은 구강병의 예방과 공중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수적이다. 특히, 구강건강관리 습관 및 구강보건지식이 형성되는 학동기에서 구강보건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학교구강보건을 포함한 학교보건을 담당하며 학생들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양호교사의 구강보건 인식도를 조사 평가하는 것은 학교구강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서울시내 소재 국민학교에 근무하는 양호교사 305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지식 습득경로, 구강위생관리 목적, 치아우식증 예방법의 효과에 대한 견해, 불소에 대한 지식도, 불소의 효과에 대한 견해, 치주질환에 대한 인식도, 학교구강보건에의 역할 인식도 등에 대하여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의 근무경력을 대개 연령과 비례하여 분포하였으며, 50% 이상의 6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고 있었다.

구강보건지식 습득경로는 보수교육이 69.8%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홍보책자와 학교수업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Lang 등[8]과 O'Neil [4]의 연구에 의한 외국의 경우에는 치과의원에서의 교육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단지 18.4%만이 치과의원에서 구강보건지식을 습득했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치과의원 내에서의 환자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라 추측된다. 또한, 양호교사의 구강보건지식 향상을 위해서는 보수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아울러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구강위생관리 목적에 대한 견해는 치아우식증 예방이 1위였는데, 이는 오랫동안 치아우식증 예방이 치주질환 예방보다 널리 인식되어 왔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아동에의 모범은 가장 비중이 작은 것으로 응답하여 교육적인 면보다는 개인위생 차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관찰하였다.

치아우식증 예방법의 효과에 대한 견해는 정기적인 치과내원과 당분섭취제한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견해와 효과적인라는 견해가 대부분이었으나 다른 예방법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재대로 인식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불화음료섭취와 치솔사용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른 예방법에 비해 효과가 적다고 오해하고 있었고 특히 불소정제복용과 치면열구전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다양한 치아우식증 예방법에 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불소에 대한 지식도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불소가 치아의 충치저항성을 높여주고 세균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기본 영양소가 된다든지 재석회화를 유도하는 등의 특성에 대해서는 부정확하게 답하였다. 이는 학교구강보건 담당자로서, 특히 불소용액양치사업과 같은 구강보건 사업 주관자로서는 부족한 지식정도를 나타냈다. 근무경력에 따라서 비교하여 보면 전반적으로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올바른 응답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취업 후 새로운 지식습득과 관심이 부족한 때문으로 추측되며 계속적 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불소의 효과에 대한 견해는 사용법에 따라서 큰 차이를 갖는다고 응답하지는 않았지만 불소복용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가 적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앞서 질문3에서 치아우식증 예방법의 효과에 대한 견해에서는 불소도포가 가장 좋은 이용법이고 음료수 불소화는 효과가 적은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본 질문5에서는 음료수 불소화가 가장 좋은 불소이용법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교사들이 불소의 사용법과 그 효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치주질환에 대한 인식도는 전반적으로 치주질환의 원인, 증상, 예후 등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인식되어 있었으나 그 예방법 및 관리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구강청결이 치주질환 예방에 더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 정도가 옳다고 하였다. 그러나 앞서 질문2에서 구강위생관리목적의 최우선 순위가 치아우식증 예방이라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교사들이 재래적인 치과지식을 일부 갖고 있으며 확고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사료되며 이는 미국의 일반교사들 조사결과[6)8)]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에 따른 치주질환에 대한 인식도를 비교하여 보면, 근무경력이 1년에서 5년사이의 군이 많은 항목에서 가장 높은 옳은 응답자율을 보였는데, 이는 근무년수와 비례하는 연령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치주질환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도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학교구강보건에의 역할 인식도는 대개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을 하였으나, 불소용액양치사업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자율이 높았다. 이는 특히 근무경력이 증가할수록 찬성율이 감소했는데, 실제로 경험해본 결과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Lang 등[8)]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교사의 경우 취업 전에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일단 취업 후에는 근무경력에 관계없이 부정적인 견해가 증가한다고 한다.

총괄적으로, 초등 양호교사의 구강보건지식은 매우 단편적이고 특히 구강위생관리나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각종예방법 등에 대해서는 부정확하고 부족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학교구강보건에의 역할 인식도는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나 실제로 경험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을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구강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양호교사들의 구강보건지식과 학교구강보건에의 역할 인식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고,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학교구강보건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학생들과 일반교사들이 사업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여 적

극적으로 협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V. 결 론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적절히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목적으로 서울시 초등 양호교사 305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지식 및 학교구강보건에의 역할 인식도를 조사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서울시 초등 양호교사의 구강보건지식 습득경로는 보수교육을 통한 경우가 69.8%로 가장 많았다.

2. 다수의 응답자는 재래적 개념의 구강위생관리 목적을 갖고 있었다.

3. 다수의 응답자에서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예방법과 불소에 대한 지식도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학교구강보건에의 역할 인식도는 대부분이 긍정적이었으나, 불소용액양치사업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권장과 함께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학교 당국의 협조가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1. 김은희 : 서울지역 국민학교 양호교사의 학교간호업무 수행정도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 : 50-65, 1988.
2. Falk, V. T. & Kilcoyne, M. E. : *A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school personnel. J. School Health,* 54 : 239-243, 1984.
3. Mckenzie, J. F. : *Twelve steps in developing a school site health education/promotion program for faculty and staff. J. School Health* 58 : 149-153, 1988.
4. O'Neill H. W. : *Opinion study comparing attitudes about dental health. J. Am. Dent. Assoc.,* 109 : 910-915, 1984.
5. Freed J. R. & Goldstein, M. S. : *Dental health ; What is being taught to college students. J. Am. Dent. Assoc.,* 92 : 940-945, 1976.
6. Glasrud, P. H. & Frazier, P. J. : *Future elementary school teachers' knowledge and opinions about oral health and community programs. J. Public Health Dent.,* 48 : 74-80, 1988.
7. Loupe, M. J. & Frazier, P. T. : *Knowledge and attitudes of school teachers toward oral health programs and preventive dentistry. J. Am. Dent. Assoc.* 107 : 229-34, 1983.
8. Lang, P., et al. : *Oral health knowledge and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teachers in Michigan.*
9. Boyer, M : *Classroom teacher's perceived role in dental health education. J. Public Health Dent.,* 36 : 237-243, 1976.
10. Kenney, J. B. :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schools in affecting dental health status—a potential yet unrealized. J. public Health Dent.,* 39 : 262-267, 1979.
11. Kittleson, M. J. & Ragon, B. M. : *A survey of health education requirements in American universities J. School Health,* 54 : 91-92, 1984.
12. 김명호 : 학교보건사업 개선을 위한 고찰. 학교보건 통권8호, 1979.
13. 김종배 : 공중구강보건학, 고문사, 1986.
14. 김주환 외 :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의사협회지, 8 : 371-376, 1970.
15. 서성제 : 우리나라 학교보건사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16. 서울특별시립 학교건강관리소 : 양호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인식도에 관한 조사. 서울특별시립 학교건강관리소 연보, 1988.
17.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 학교보건관리지침, 1988.
18. (주)럭키 : 한국인의 구강보건실태와 구강위생의식에 관한 조사보고서, 1983.
19. 진경희 : 직접집단구강보건교육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3 : 127-131, 1975.

〈Abstract〉

A Study on the Oral Health Knowledge-Age and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 Nursing Teachers in Seoul

Guilla Chway*, Kyung Hwan Kwak*, Sung Chul Chung, Chong Youl Kim****

(*Dept. of Oral Health, School Health Center

**Dept. of Preventive Dentistry, Yonsei University)

Nursing teachers at elementary schools in Seoul were surveyed to determine their sources of information about oral health and their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dental diseases and disease prevention. Questionaires were completed by 305 school nursing teachers. The questionaire included 8 items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sources of oral health information, reasons for maintaining good oral hygiene, ranking of methods of caries prevention in children, knowledge about fluorides, percieved effectiveness of fluorides for children, knowledge about periodontal disease, and the role of school nursing teachers in promoting oral health.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The most frequently cited sources of information about dental health were continuing education courses(69.8%).
2. Most respondents had old concepts about the reasons for maintaining good oral hygiene.
3. Elementary school nursing teachers' knowledge about fluorides and preventive methods of 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 was found to be incomplete and sometimes inaccurate.
4. Respondents were likely to agree to accept roles that promote oral health except the supervising of fluoride mouthrinsing. Thus, it was considered that cooperation of all school members is necessary for improving oral health status by following fluoride mouthrinsing